

제2강: 신명기 4장 10-31절

Review

신명기 4장은 십계명의 개요(1-9절)와 제1 계명(개요부분과 32-40절)과 제2 계명(10-31절)과 도피성(41-43절)과 이에 대한 토라 편집자들의 인증(44-49절)이 들어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바알브올 사건과 호렙 산의 오순절 사건을 상기 시킵니다. 바알브올 사건은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바산을 물리친 후에 일어난 배교사건으로 출애굽 제40년 10월에 즈음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신명기 강의를 시작한 모세와 이를 수강한 신 세대 이스라엘에게 매우 생생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더구나 시므온 지파의 수 많은 남자들이 죽고 사라졌으니... 호렙 산의 오순절 사건은 출애굽 원년 3월 6일이 있었던 마탄 토라를 말합니다.

신 세대 이스라엘에게 바알브올 사건을 언급하면서 후킴(호크, 규례)과 미쉬파팀(미쉬파트, 법도)와 토라(율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라가 가장 큰 개념으로 미쉬파팀과 후킴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후킴은 미쉬파팀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토라가 가장 큰 개념이고 미쉬파팀이 가장 작은 개념입니다. 토라는 모세5경을 말하고 후킴은 할라카를 말하고 미쉬파팀은 할라카의 세칙이 아닐까요?

모세는 미쉬파팀과 후킴과 토라를 통해 사람들은 하캄(지혜)과 나본(지식)을 얻으며 이것으로 그 사회에서 짜디킴(공의)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토라는 공동체의 공의로운 삶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짜디킴이 충만한 사회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 사회가 큰 나라가 되게 하시고, 힘만 센 강대한 나라를 쉽게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요르단 동쪽의 광대한 영토를 얻게 된 이유라고 모세는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2022년 3월 20일 주일설교에서 필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요한신학의 용어를 사용하여 십계명의 1,2계명에 관련한 예수님 논증을 했는데 오히려 혼란만 초래했습니다.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했습니다.

본문연구

10) 오늘 본문도 여전히 모세의 이스라엘 신 세대를 위한 강의 중 일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 세대는 출애굽 때 20세가 되지 않았고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네게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을 그들과 동일시했습니다. 톨레도트(태어남)의 신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신 세대에게 이 말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11)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1세대는 호렙 산 가까이 와서 그 기슭에 섰는데, 그때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의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고 합니다. 돌 밖에 없어서 돌도 녹일 수 있는 마그마가 솟아난 게 아니라면 불이 붙을래야 붙을 수 없는 호렙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의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 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려고 그를 부르실 때 불이 붙었으나 타지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나타나셨지요.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12) 하나님께서 불길 중에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트무나)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음성(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으로만 전달이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 계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형상은 우리의 목상 중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요 1.1에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창 1.1을 이용하여 기독교론을 제시한 것이지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아무 주저없

이 말합니다. 그런데 요 1.14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언급은 유대인들을 무척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우상숭배자들이라고 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곧 예수를 말하는데 그 예수는 형상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형상이 있는 예수를 하나님이라 하는 기독교인들은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형상을 지닌 예수님이란 존재가 제2 계명이 지적한 인간이 만든 (man-made) 형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간이 형상이라면 그 형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지요. 창 1.26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꺄렘)을 자신의 모양(뜨무트)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인간이 만든 우상이 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식물과 광물 등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는 것은 제1 계명을 범하는 것이지 제2 계명을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 계명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든 우상을 규제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구별이 필요할까요?

13-14) 하나님은 불길 중 음성으로 그의 언약(브리트)을 반포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아세레트 하 드바림)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십계명을 두 번이나 직접 돌판에 써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규례(후킴)와 법도(미쉬파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훈의 자료가 되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15) 여기서 모세는 다시 호렘 산 불길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형상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형상의 문제에 대해 깊이 삼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 이하 구체적인 사항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 우상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만든 형상을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의 형상을 만들면 안됩니다. 심지어 사람과 동물을 섞은 형상도 있습니다.

17) 땅 짐승이나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을 만들면 안됩니다.

18) 땅 위를 기는 곤충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을 만들면 안됩니다.

19) 천체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 배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보고 미혹해서 그것에 경배하면 안됩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주역이나 바벨론 점성술 등에서 중요하게 다룹니다.

20)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집트는 우상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있는 쇠 풀무불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옥이지요. 이에 염증을 느낀 자들이 결국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입니다.

21) 하지만 모세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22) 모세는 요르단 강 동쪽 땅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르고 가르쳤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강을 건너가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겁니다. 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런 가혹한 벌을 내리셨을까...

23) 모세가 벌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엄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그가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을 조각한다면?

24)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십니다.

25)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아도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 조각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 그의 노를 일으키면...

26) 우상숭배를 한다면 그 곳이 가나안 땅이라 해도 그 우상숭배자는 속히 망할 것이다... 그 수가 많아지면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하게 될 것이다...

27)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중에 흠어질 것이고 흠어져도 그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시므온 지파를 봤지?

28) 너희가 도망간 곳에서 너희가 원치않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로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도무지 가치없는 것에 시간과 정열을 쏟는 한심한 자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29) 하지만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지역 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요 또한 구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30) 이스라엘은 당할대로 당하다가 결국 끝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말씀을 들을 겁니다.

31)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결코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겁니다.

정리

21-31절의 말씀으로 이 글이 바벨론 포로시절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글을 미리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라는 물론 가필정정의 흔적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완전무결한 게 아니란 말이지요. 하지만 그 핵심 내용은 당연히 모세에게로 소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고백이요 또한 믿음입니다.

십계명을 언약(브리트)이나 계명(미쯔보트)라 하지 않고 아세레트 하 드바림, 즉 열 가지 말씀이라 한 것이 재미있습니다. 드바림은 매우 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의 각각의 계명으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우상을 섬길 수 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이 참 무섭게 여겨집니다.

팁) 신명기 4장의 특이점과 예수님의 로고스론

신명기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한 단어가 미쉬파팀(법도), 후킴(규례), 토라(율법)와 함께 드바림이 나옵니다. 브리트(언약)으로서의 아세레트 하드바림(십계명)에서 이 드바림을 발견할 수 있지요. 십계명이라면 ‘미쯔보트’를 써야 할 것 같은데 특이하게 십계명은 ‘드바림’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시편 119편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덟 가지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그 차이를 논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무튼 신명기 4장에서는 이 여덟 가지 중 네 가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는 출애굽기 등에서 시내 산 또는 호렘 산이라 부르던 산을 오로지 호렘 산이라고만 부릅니다. 아무래도 신명기 출애굽기 등보다 훗날 쓰여졌을텐데 호렘 산이란 명칭만 쓰고 있는 게 특이하지요. 신명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렘 산까지 걸어서 열하룻길이라는 것도 특이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루에 가는 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까지 가는 것을 표준으로 생각할 때 4킬로미터쯤 됩니다. 그렇다면 호렘 산까지 40킬로미터쯤 된다는 것인데...

모세는 신명기 4장 10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의 신 세대에게 출애굽 원년 3월(시반) 호렘 산에서 있었던 오순절 사건에 대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 세대가 이 말을 들었을 때가 출애굽 제 40년 11월(쉐발)이니 39년이 넘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구 세대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호렘 산에 임재하셨고 암흑 속에서 불길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불길이 충천했다고 하는데 호렘 산은 돌산이라 마그마가 아닌 이상 탈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은 하나님의 신비한 불로 봐야 합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호렘 산 입구에서 봤던 떨기나무에 붙은 불... 그러나 나무를 태우지 않았던 불... 그런 신비한 불이었습니다.

모세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구 세대를 향하여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직결이 되는 간악한 죄가 됩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길 속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 그게 곧 십계명, 즉 ‘아세레트 하드바림’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 돌판에다 친히

새겨주시기도 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창조에 관여했으며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로그스론인데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형상이 아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사람이 만든 형상이 문제지...

작년 하반기에 우리 예레미야의 신탁을 다루면서 그 당시 그 지역의 우상들에 대해 훑어본 바 있습니다. 모세 시대는 이보다 700년 이상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제시하는 우상의 모습들은 700년 이상 후 시대의 것들과 비교하여 그리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해양민족은 물고기 형상의 우상을 섬겼고, 산악민족은 새 형상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소위 문명을 이루었다는 민족들은 사람의 형상은 물론 사람에다 짐승을 섞은 형상들까지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천체의 움직임을 논하다가 태양 신을 섬겼고 또한 달과 별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모세가 나고 자랐던 이집트는 우상의 천국이어서 모세는 이집트를 가리켜 '쇠 풀무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으며 그들에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시고 이어서 "너를 위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모세 자신의 주석은 출애굽 원년 오순절에 호렘 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로지 음성으로만 말씀하셨고 그 형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지 모든 조각품을 금지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는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이유도 예수도 인간의 형상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비난이 합당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은 인간 그 자체이지 무슨 사람의 형상을 빚은 조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 그 자체야 하나님의 창조물이지요. 이런 이유로 예술품이나 장식품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즐기는 것은 이 계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세는 이 계명과 관련하여 만약 우상숭배를 하면 가나안 땅에서라도 속히 망하고 심지어 전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여러 민족 중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길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대목은 바벨론에 살던 토라 편집자들이 붙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누가 모세의 말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으리요.

하브루타

- 1) 신명기 4장에서 제1 계명에 속하는 부분을 말해 봅시다.
- 2)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은 예를 찾아봅시다.
- 3) 각종 토템이나 애니미즘이나 신상 등이 만연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4)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음성을 통해 십계명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2 계명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 5) 새의 형상으로 비행기를 만들고, 물고기의 형상으로 잠수함을 만들고,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어 감상하는 것은 제2 계명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논증해 봅시다.
- 6) 우상이란 무엇이며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 7) 요한이 말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 8) 예수님의 존재가 제1 계명과 제2 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논증해 봅시다.

교회론 2

2019년 11월 말에 중국 우한의 동물시장에서 시작된 괴질은 그 바이러스의 모습이 태양의 코로나를 닮았다 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드로 불리워 졌고 COVID-19란 약어를 쓰며 세계적인 팬데믹을 만들었습니다. 전염속도가 너무 빠르고 사망자 수가 너무 많아서 거의 1년 동안 전 세계는 손을 쓰지 못하고 허둥지둥 댔습니다. 전염을 우려해 각국 정부가 외출을 금하고 식료품 가게나 다녀오게 하다보니 교회의 주일예배는 불가능해 지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일예배가 불가능해 진 것은 이것이 사상초유였습니다. 물론 2022년 3월 현재 교회의 주일예배는 회복이 되었으나 참여 인원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보건당국이 주일예배의 출석인수를 전 교인의 몇 십 퍼센트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교회의 경우 가장 중요한 모임이 주일예배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교인들이 주일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요즘 교회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아직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이러스 하나 못 막느냐는 불평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교회에 충성하고 전도했으면 그 정도는 막아주셔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 출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그 근본이 샤머니즘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러고보니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커지고 기독교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샤머니즘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 현세구복적 종교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셔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나쁜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추구하면 안되는 것인가? 그럴리가요...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추구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4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넓은 개념으로 토라, 그 다음은 후킴(호크), 그 다음은 미쉬파트(미쉬파트)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율법, 규례, 법도로 번역하지만 번역으로는 그 차이를 알기가 힘듭니다. 히브리어로 콘코던스를 찾아서 용례를 파악해야 되겠지요. 신명기 4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 이방인들로부터 '큰 나라' 사람들이란 칭송도 듣게 된다고 합니다. 8절에 따르면, 토라와 호크와 미쉬파트가 제대로 지켜지면 공의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방인들은 큰 나라라고 부르며 흠모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공의는 '짜디킴'이란 단어를 씁니다. 짜디킴의 복수형으로 옳은, 적법한, 공의로운 정부를 가진, 법이 잘 지켜지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큰 나라는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두 말할 필요도 없이 토라와 호크와 미쉬파트를 지키며 공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리하여 공의로 충만한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나라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현대적 의미의 민족국가 즉 Nation State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는 오늘날 교회와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세계 속의 교회였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현세구복적인 기도를 하기보다 호크와 미쉬파트를 지키며, 즉 토라를 지키며, 짜디킴, 즉 공의를 이루어 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교회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사랑도 공의 그 다음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공의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있고 나서,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나서, 신명기 4장 말미에 도피성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

만 도피성에 누구나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의 책임자들은 범죄 여부가 애매한 사람, 진짜 억울한 사람을 가려 받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대놓고 확실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 책임자들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지금 교회와도 상관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공의를 지켜가기 힘듭니다. 공의를 지키는 사람도 사람이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공의없이 사랑만 주장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사랑도 공의 중 한 부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사랑 중 한 부분이 공의 일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신명이 표현대로라면 가감없이 행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 방법이며,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의가 없어도 작은 나라를 이루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가 없으면 망하게 되겠지요.

신명기 4.7-8에서 모세는 새 세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두 가지 질문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란 뜻이지요. 이스라엘이 공의로운 큰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신 연고란 말입니다. 이 세상을 둘러 보라...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또 있는가... 당연히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 세대가 출애굽 사건으로 이미 경험한 바이며, 신 세대는 불과 몇 달 전에 바알브올 사건을 통해 이를 경험한 바입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신앙고백이 되었습니다.